

학술서 번역지침 삼을만한 의미있는 차이들

미셀 푸코 지음 「감시와 처벌」의 서로 다른 두 번역본을 읽고

이재룡

숭실대 교수·불문학

「미셀 푸코의 문학비평」(문학과지성사)의 편저자 김현은 “푸코가 유행되면 될수록 더욱 마음을 착잡하게 만든다”라며 당시 상황을 회의적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첫째 번역된 저서가 많지 않고, 둘째 번역이 되어도 영어에서 증역된 것이라 “복잡하고 정확한 푸코 문체”의 묘미가 훼손되었고, 셋째 그러한 푸코의 문장을 제대로 번역할 만한 “인력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다. 몇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달라졌을까. 미셀 푸코가 일시적 유행으로 그치지 않고 여전히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고 지속적 관심을 끌고 있는 지금 그의 대표작 「감시와 처벌」이 증역이 아닌 번역본으로 나남 출판사와 강원대 출판부에서 나와 일반독자가 골라서 읽을 만큼 여유가 생겼다는 게 달라졌다. 독자 입장에선 한 권뿐인 번역본의 선택을 강요받지 않아 행복하지만, 많은 시간을 할애해 책을 고르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같은 텍스트에서 출발한 두 번역본, 같은 역자가 같은 문장을 두번 번역하더라도 같을 수 없는데 전공과 개성이 다른 두 역자가 낸 두 책 사이에는 우선 한눈에 드러나는 차이도 적지 않았다.

원문에 충실한 강원대본

강원대 출판부에서 나온 박홍규 역 번역본은 앞에는 상세한 해설, 중간에는 풍부한 역

주, 끝에는 서지와 색인이 붙어있다. 해설은 작가와 원전의 소개뿐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나 제도 등을 비교하여 능동적 독서를 유도하고 역주는 원문의 다른 부분, 푸코의 다른 저서를 거론·설명함으로써 유기적 이해를 돕고 중요한 단락이 끝날 때마다 내용을 요령껏 요약하고 핵심을 짚어주는 역자의 전문지식이 본문 이해에 큰 도움이 된다. 이보다 뒤에 출간된 오생근 역 나남 출판본은 서지·색인이 없고, 서문도 본문의 내용과 미셀 푸코의 사상을 객관적 시선으로 담담하게 소개하고 역주도 대부분 고유명사를 설명하는 데 그치고 있다. 서문이나 주석, 색인 등 일종의 파라텍스트(paratext)에서 보이는 이같은 차이는 본문이 아니므로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텍스트를 대하는 두 역자의 태도가 사뭇 다르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즉, 번역이란 단지 외국어를 우리말로 옮기는데 그치지 않고 주체적 수용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도, 그리고 우리 현실이 「1984」나 「동물농장」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현실인식이 역자에게 허용된 비좁은 공간 속에서 표현된 것이다. 하지만 나남 출판본의 역자는 그러한 좁은 공간이 아니라 이미 여러 편의 본격적 논문을 발표하여 누구보다도 일찌기 미셀 푸코를 연구한 학자이니 구태여 텍스트의 주변에서 중복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 것이고, 역

푸코의 대표작 「감시와 처벌」에

대한 두 번역본이 나왔다.

박홍규 역 강원대본과

오생근 역 나남본이 그것이다.

이 글은 두 번역본의 미세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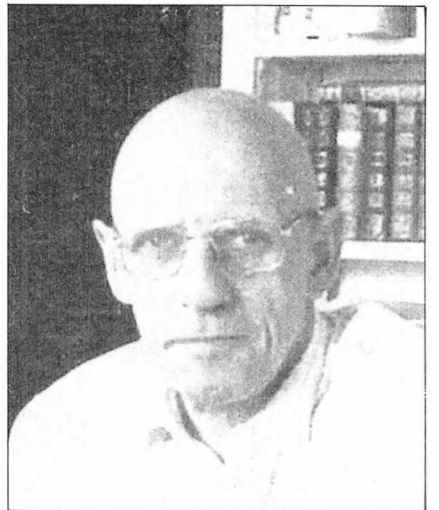
‘사이’와 ‘차이’를 검토함으로써,

외국학술서의 한국어번역에 따르는

큰 문제점들을 짚어나가고 있다.

그 두 번역본의 차이는 푸코번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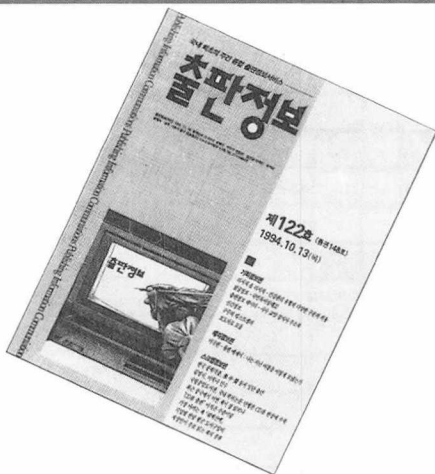
중요한 지침이자 선례가 될 것이다.



「감시와 처벌」의 저자 미셀 푸코.

자의 잦은 개입으로 원작자의 음성이 자칫 가려질 수도 있기에 역주를 자제하고 독자의 시선을 원문에 모아주는 것처럼 보였다. 두 역자의 학문적 배경이 불문학, 법학으로 각기 다르고 따라서 푸코를 접근하는 태도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소하지만 또 다른 차이점은 나남본은 활자 크기나 행간에 여유가 있고 해당 삽화를 텍스트 내에 삽입하는 등 독자를 배려한 덕분에 물리적 가독성이 뛰어났다. 역자가 여러가지 법률 용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한 나남본은 본문이 상대적으로 읽기가 수월했다. 강원대 출판본

의 역자는 푸코의 문장이 어려워간결한 한글로 만들려고 노력했다지만 개념의 정밀성을 기하다보니 문장을 읽는 독자는 시종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그것은 역주를 통해 능동적·유기적 독서를 도모한 의도와도 일맥상통하는 번역 태도였지만 일반 독자에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이러한 예를 1부 2장에 한정하여 찾아보면 “규칙이 준수되어야 했다”라는 나남본의 번역(69면)이 강원대 출판본(63면)에서는 “규칙이 준수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점에는 변함이 없었다”라고 번역되는데, 후자가 푸코 문장의 묘미는 살릴지 몰라도 독자는



출판정보가 변한다.
원일이 단단히 생겼다.

주간

출판정보

주 1회 발행으로 얼굴과 내용이 바뀝니다.
분량과 내용은 종전보다 마음에 들도록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고객불만접수 : 271-0494

구분	목요판
발행일	주 1회
내용 1	원고뱅크, 리서치 & 리서치, 발굴 정보, 출판정보 데이터, 주간 베스트셀러 종합/분야별 목록, 신간정보, 기획칼럼, 광고모음, 보도자료 모음, 게시판
내용 2	미국, 일본 베스트셀러 목록, 출판계 동향, 베스트셀러의 뒷 이야기, 화제의 책, 화제의 작가, 분야별 신간안내, 신간목록
내용 3	신문정보(출판경향 및 판매, 동향, 출판업계 동정, 도서관 및 독자정보, 작가, 책정보 등)
내용 4	기획특집, 출판경영 및 마케팅, 베스트셀러 기획법, 출판광고 마케팅, 서점운영법, 장서 및 서고관리 등

문장이 끝날 때까지 긴장을 풀 수 없다. 물론 이것은 앞서 말한 “물리적” 가독성의 차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더딘 독서에 이런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멈칫거리면 정작 핵심을 놓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나남본의 독자에 대한 배려는 다른 곳에서도 엿보인다. 푸코는 “형벌이 신체형으로 되기 위한” 세가지 주요한 기준을 제시하는데(나남 65면, 강원대 60면) 나남본은 문장을 첫째·둘째·셋째라고 시작하면서 두번째부터 행갈이로 구분하여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반면, 강원대본은 둘째 기준은 원문에 충실하게 “그러나 이어서 고통을(…)”으로 되었으니 “그러나”라는 역접 속에서 둘째 기준임을 짐작해야 하고 문단 구분도 하지 않았다. 나남본이 원문에 없는 문단 구분이나 “둘째”를 넣은 것은 물론 가독성을 배려한 것이다. “독자는 게으르다”라는 불란서 경구는 우리에게도 해당될 것이기에 전달의 효율성을 염두에 둔 자상한 뜻이 엿보인다.

나남본은 가독성 배려한 번역·편집 돋보여

이러한 사소한 차이를 넘는 부분도 간간히 발견되는데, 원문에 충실한 강원대본에서 68면 14번째 줄 “다양성”이란 표현이 나남본에서는 “모호한 양의성”으로 번역되었는데 원문에 가까운 것은 모호성이라 여겨진다. 두 번역본을 모두 동원해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

분도 있으나 이는 원문을 확인해도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경우이다. 예컨대 “나환자 쪽은 사회적으로 제거와 추방-봉쇄의 실무 속에서 파악되었다. 곧 개개인에게 차이를 설정하는 것이 중대사가 아닌 것으로 되는 집단 안에서와 같이, 그 실무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살아지게 두었다”(강원대본, 258면)란 부분이 얼른 이해되지 않아 나남본을 비교하면 “나병환자는 배척, 추방-봉쇄의 현실 속에 사로잡혀서, 개인의 분화가 별로 중요시되지 않는 대중 속에서 그렇듯이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나남본 293면)로 번역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용어의 전문성(실무, 현실)과는 무관하게 보이는 반면 전문분야와 관련되어 일반독자에게 낯선 용어에서 보이는 차이, 예컨대 ‘규문(綱文)’과 종교재판적 심문 등과 같은 차이는 딱히 어느쪽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없었다. 그보다도 「감시의 처벌」을 통해 새롭게 떠오른 중요개념으로서 앞으로 여러 글에서 자주 만나게 될 ‘파놉티즘’(panoptisme)이란 용어는 나남본은 “일방 감시방법”, 강원대본은 “원형 감시방법”이라 했는데 어느 쪽으로든 조만간 정착되리라 기대된다. 한자 조어인 일망감시(一望監視)가 의미적으로는 원어와 가까운 듯하나 강원대 출판본(292면 역주 28)에서는 일본에서 채택한 용어이며 우리에게 낯설기에 “원형 감시”를 택했다고 했는데 이러

한 지적은 우리나라 학술용어의 번역문제에 있어서 자주 제기되는 문제를 시사하고 있으니 숙고해 볼만한 점이다. 강원대 출판본은 불어판을 주 텍스트로 삼고 영역본과 일역본을 참고했다고 밝혔는데 텍스트 내의 고유명사의 한국어 표기가 불어식 발음이 아닌 게 자주 눈에 띄어 이상했다. 문교부에서 제정한 외국어의 한글표기 원칙이 있기는 하지만 역자들이 모두 수긍하여 그에 따르는 것 같지는 않다. 음성학에 무식한 탓이지만 필자 역시도 ‘센느강’이 왜 ‘세느강’으로 표기되는지 모르겠고 이런 탓에 ‘까뮈’와 ‘카뮈’를 다른 사람으로 취급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또한 원어 표기에 오자가 적지 않았고 색인도 단순한 고유명사 색인이 아니라 개념까지 수록한 소위 분석적 색인이라면 보충할 점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런 점은 실로 공연한 트집에 불과하지만 번역에 들인 공을 생각하면 조그만 흠집이라도 바로잡는 편집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미셸 푸코의 저서가 적지 않게 번역될 것이고 선례가 중요한 지침으로 작용할 것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전체적으로 나남본은 단정한 문장으로 내용을 정확하고 쉽게 전달하는 길을 택했고 강원대 출판본은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기하면서 푸코의 주체적 수용을 위해 노력했다는 느낌이 든다. 두 역자가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한 결실에 대해 무책임한

단견을 나열하고 느낌으로 마무리하자니 부담스럽다. 개인적으로 「감시와 처벌」을 읽으며 역자의 고충을 짐작케 하는 부분이 많았고, 그때마다 원본과 비교·확인하면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풀어나가는 문장쯤에서 배운 점이 컸다.

사족 하나를 덧붙이자. 두툼한 원서를 앞에 놓고 우리글로 옮기다보면 번역이 뜨게질이나 수를 놓은 일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 한 글자씩 채워나가는 일이 상상력이나 추론력같은 덕목보다 꼼꼼함과 부지런함이 요구되는 작업이기에 그렇다. 「감시와 처벌」의 역자는 이미 일반에게도 낯설지 않은 학자이니 정신적 부담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번역의 동기가 두 분 모두 푸코라는 사상가의 객관적 이해뿐 아니라 우리 현실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는 신념이었다고 했는데 실로 널리 읽힐 수 있길 바란다. 다만 아직도 푸코의 저서 중 미번역된 것이 많고 우리에게 많지 않은 귀중한 인력이 같은 책을 번역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는 게 아쉬움으로 남는다. 소문만 무성할 뿐 막상 번역된 책이 없는 현실을 보는 독자의 착잡함, 그리고 오랜 시간 매달려서 번역 중인 작품이 다른 출판사에 의해 먼저 나왔을 때 역자가 느꼈다는 참담함, 이런 문제를 해결할 묘수는 없는지 답답하다.

출판정보가 값을 내렸다. 꿈에도 생각못한 일을 벌인다.

6개월 12만원
1년 20만원
좀더 많은 회원님과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입니다.

중전의 회원들께서는 남은 차액만큼 구독기간이 자동 연장됩니다.

구독문의 : 271-0494~5
담당 : 최은선

